

리오는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으면서 상상 놀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중에서도 보라색 치마를 특별히 좋아하지요.
 어느 날, 리오는 가장 좋아하는 보라색 치마를 입고 엄마와 함께 나들이를 나왔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예쁜 꼬마 아가씨'라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어요.
 치마를 입었지만 그래도 리오는 남자아이인데 왜 '꼬마 아가씨'라고 했을까요?
 그럼 여자아이가 바지를 입으면 '멋진 꼬마 신사'라고 불러야 할까요?
 리오는 왜 남자아이가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궁금해요.
 정말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인터내셔널 내레이팅 이퀄리티(International Narrating Equality) 상은 문학에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평등과 다양성을 복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탈리아의 단체 우먼 투 비(Woman to be)가 제정했습니다.



값 13,000원
 7 3 8 7 0
 9 791192 665276
 ISBN 979-11-92665-27-6 73870

출판 유통 도서 제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3세 이상 제2023년 (주)우리교육
 제2023년 대한민국 문학제 02-3142-6770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9길 46
 주위사항 종이 배이거나 굵기 다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책 모서리가 날카로우니 만지거나 밀어뜨리지 마세요.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리오는 보라색 치마를 입어요!

이르마 보르게스 지음 | 프란체스코 파냐니 그림 | 송연미 옮김

우리교육

리오는 보라색 치마를 입어요!



이르마 보르게스 지음
 프란체스코 파냐니 그림
 송연미 옮김



우리교육